

Michael Walzer의 민주사회주의*

김 홍 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 서 론

Walter A. Jackson은 미국 자유주의 지식인에 관한 한 연구논문¹⁾에서 “1950년대의” 미국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미국인들이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공유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권문제는 미국의 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저명한 백인 지식인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Jackson에 의하면, 이들 백인지식인들은 인권문제를 남부의 문제로, 후진경제의 유산정도로 이해하였으며, 또한 남부경제의 근대화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였다. 따라서 이들 지식인들은 흑백의 비분리 문제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진주의를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자연스럽게 인권문제보다는 “외교정책, 시민적 자유, 소비사회 그리고 대중문화에 관한 논쟁 등에 몰두”하게 되었다.²⁾

Jackson의 이와 같은 지적은 1950년대의 전반기를 Brandeis에서, 그리고 후반기를 Harvard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보낸 Michael Walzer의 경우에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Walzer는 Brandeis에서 맺은 Irving Howe와의 깊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1956년부터는 Howe가 편집하는 *Dissent*지의 기고가로 활동하게 되었다.³⁾ 그러나 이 당시의 Walzer의 글을 보면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거의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가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봄 *Dissent*지의 특파원으로 Durham에 있는 North Carolina대학의 농성데모에 참여한 이후부터의 일이다. 그후 Walzer는 월남전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주도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공동체론과 다문화주의 등을 전개하면서, 그의 독특한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노선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의 “민주사회주의”는 특히 “저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Walter A. Jackson, “From Moderation to Engagement: White Liberal Intellectuals and Civil Rights, 1954~1964”, *School of Social Scienc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Princeton*(Nov. 23, 1992), pp. 1-40.

2) *Ibid.*, p. 3.

3) Mauris Isserman, *If I Had a Hammer...: The Death of the Old Left and the Birth of the New Left*(N.Y: Basic Book, 1987), pp. 109-23.

항”(resistance)과 “도덕성”(morality) 그리고 “평등”(equality)을 강조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본고는 Walzer의 “민주사회주의”론을 그 초창기에까지 소급해 살펴봄으로써, 현실 사회주의 붕괴이후 좌파 지식인들이 겪고 있는 지적 공백과 이념적 혼란 가운데서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장의 내용과 그 역사적 의의를 밝혀보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좌파 지식인들의 논의의 방향과 그 지표를 조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저항과 비판

Walzer는 Brandeis에서 학부를 마친 후 잠시동안 Irving Howe와 Louis Coser의 연구조교로서 『미국공산당사』⁴⁾의 집필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 그후 그는 Harvard로 가서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었고,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Dissent*지에 기고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에는 드디어 *Dissent*지의 편집위원의 한 사람이 되었다.⁵⁾ 그가 처음으로 기고한 글은 1956년 가을호에 실린 “미국공산주의자들의 시련”(The Travail of the U.S. Communist)이라는 것이었다.⁶⁾ 이 당시는 후르시쵸프가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행한 스탈린 비판과 여기서 비롯된 “스탈린 격하운동”(deStalinization)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편으로는 폴란드 공업도시인 Poznan에서 노동자들의 폭동이 발발했던 때였고(1956년 6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공산당도 그 영향을 받아 당권파인 William Z. Foster-Eugene Dennis와 개혁파인 John Gates-Alan Max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당의 분열과 해체가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위기의 시기였다.⁷⁾

Walzer는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미국공산당의 갈등과 진로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글의 모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국공산당 지도자들이 새로이 찾은 그들의 비판의식을 선포하자마자, 포즈난의 노동자들은 이들에게 이러한 의식을 과시할 극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산당은 과연 후르시쵸프 보고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까지, 더욱이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까지 그의 비판을 확대할 수 있을까?⁸⁾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Walzer는 미국공산당 기관지인 *Daily Worker*지의 논조를 면밀히 검토한다.

4) Irving Howe & Lewis Coser, *The American Communist Party: A Critical History, 1917-1957* (Boston: Beacon Press, 1957).

5) Mauris Isserman, op. cit., p. 110.

6) Michael Walzer, “The Travail of the U.S. Communist”, in *Dissent* (Autumn, 1956), pp. 406-10.

7) Mauris Isserman, op. cit., pp. 14-30, 같은 해 즉 1956년 10월에는 헝가리에도 봉기가 일어났으나 11월 4일 소련군의 진압으로 붕괴되었다.

8) Michael Walzer, op. cit., p. 406.

당시 미국공산당내에는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부터 일종의 해빙무드라고 부를 수 있는 비판의 활성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Daily Worker*지의 주필인 John Gates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추된 도덕적 권위를 교정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비판적 독자의 편지들을 과감하게 게재하였다. 그러나 Walzer는 실제로 게재된 비판적 독자들의 편지의 “수는 아주 적었다”⁹⁾고 지적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한다.

한 독자는 우리들의 “편지는 오늘날 당원들을 동요시키고 있는 깊은 내적 혼란의 약한 반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어떤 독자는 배신당한 꿈에 대한 보다 노골적인 실망감을 나타낸다: “당신들[당 전국위원회]은 별거벗은 악마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위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불러낸 악마들이 주문을 잘못 외워서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것을 불러냈다. 그것은 우리가 꿈꾼 그리고 수년동안 일했던 사회주의가 아니다...”;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호소한다: “나는 이 무시무시한 행동에 관하여 읽었을 때 소름이 끼쳤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소 연방 안에서 일어나도록 허용되었는가?”¹⁰⁾

그러나 Walzer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Howard Fast라는 사람의 글이었다. Walzer에 의하면, Fast는 수개월간 *Daily Worker*지의 「현재의 상황」(The Current Scene)이라는 칼럼을 통하여 “폭로된 것들의 주변만 맴도는 말을 했다”(talked around the revelation)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후르시초프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는 “용감하게도 이 보고서와 직면했다”는 것이다. Walzer는 Fast의 글을 비교적 소상하게 인용한다.

후르시초프 연설의 치명적인 내용들을 완화시킬 다른 아무 말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치욕적 기억으로서, 야만주의와 피에 굶주린 과대망상증의 조목별 기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 개인으로는 소련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최종의 처형이라는 보장을 이 보고서의 말미에서 기대해보았지만 허사였다. ...그 대신 나는 세 번 이상의 처형이 통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그리고 나의 내장은 보복과 재보복, 불신과 재불신의 광기에 뒤틀려 피를 토했다.

Fast는 계속해서 이렇게 토로한다.

나는 사회주의를 얻고 인간의 양심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부당한 것으로 알고있는 것이 사회주의 하에서는 올바른 관행으로 통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¹¹⁾

9) Ibid., p. 407.

10) Ibid., p. 407.

11) Ibid., p. 407.

Walzer는 이 글이 *Daily Worker*지에 실린 Fast의 마지막 글이었다고 밝힌다. 또 그는 당권파의 두 지주인 Foster와 Dennis가 Fast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거나 수용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던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¹²⁾

그러나 문제는 당권파를 비판하는 개혁세력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Walzer는 이들 개혁세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물론 Gates[편집인]와 Alan Max[편집국장]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이 취한 새로운 입장이 당 고위층의 진부한 단순 반복적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 반항적 공산당원들은 가출하겠다고 선언하고는 길을 건너가라는 허락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멀리 갈 수 없다는 아이와도 흡사했다. Foster[미국공산당 의장]와 Dennis[미국공산당 서기장]와 마찬가지로 *Worker*지의 편집인들은 후르시초프의 스탈린치하의 러시아에 대한 기술(記述)을 검토해본다거나 또는 오늘의 러시아는 변하고 있다는 후르시초프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후르시초프가 무죄방면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Azerbaijan에서 있었던 최근의 처형에 대해서도 Fast처럼 놀란대거나 비통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포즈난시의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렸다. 반면 그들은 도처에서 그들의 차별성과 비판의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이나 독자성 중 어느 하나도 현실로 만들 수 없었다. 마치 가출하려했던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길가로 나가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후르시초프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은 미련 없이 길 건너편으로 뛰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산당은 중언을 고했을 것이다.¹³⁾

여기서 우리는 Walzer가 개혁파들의 “가출”을 중용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많은 독자들도 바로 이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인다.¹⁴⁾ Walzer는 이런 점에서 Fast의 용기를 사실상 높이 사고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미국공산당이 오랫동안 길들여진 “무반성적 복종”(unthinking obedience)이나 “조심스런 복종”(cautious obedience) 또는 “습관성 복종”(habitual obedience) 이나 “무조건적 복종”(unconditional obedience) 등 모든 “반-저항”¹⁵⁾을 청산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한다. Walzer는

12) Loc. cit.

13) Ibid., pp. 408-9.

14) Ibid., p. 407.

15) Ibid., pp. 406, 407, 410. “복종”에 대한 Walzer의 거부, 그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조하게 되는 “저항”(resistance)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Jackson은 Walzer에 있어서의 “저항”의 중요성을 그의 민권운동과 관련시켜 이렇게 말한다: “... the young political theorist [i.e., Walzer] exhumed from medieval and early European history [see Walzer’s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 A Study in the Origins of Radical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5] the category ‘resistance’ to characterize the southern black movement, evidently not noticing that the white southern reactionaries had chosen the same term to characterize what they were doing. ‘Resistance’, according to Walzer, had traditionally been a form of ‘collective defense of laws and rights’. Southern black communities were reviving a practice of resistance to unjust laws that

이 글의 마지막에 가서 이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소문에 의하면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는 3파로 갈라져있다: 첫째는 Foster가 이끄는 파로서, 최근의 변화들을 최소화하려는 Thorez적 전술을 쫓는 파이다; 두번째는 Dennis파로서 후르시쵸프 노선을 충실히 따르는 파이다; 세 번째는 Worker지를 편집하는 Gates와 Max가 이끄는 파로서 보다 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파이다. Foster의 입장은 공산당의 관점에서조차 불가능하고 또 낡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두번째와 세번째간의 타협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Dennis파는 당 기관의 운영을 장악하는 반면, Worker지의 편집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활동의 여지가 허용될 것이다. 옛날의 무조건적 복종의 분위기를 신속하게 재확립하기란 불가능하다. 가장 현명한 전략은 불만의 표시를 제도화함으로써 이러한 재확립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현재 공산당이 그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산당이 대표하는 보다 큰 국제정치운동에 이익이 되는 길은 공산당이 지역조직으로서는 스스로를 해체하는 것이다.¹⁶⁾

여기서 Walzer는 “무조건적 복종의 분위기”에만 길들여진 당권파나, 새로운 상황에 처하여 저항의 용기를 갖지 못한 개혁파들이란 모두가 말하자면 “구좌파”(Old Left)에 속한 세력으로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의 “보다 큰 국제정치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이들 중심의 공산당 조직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should dissolve itself as an organization)고 본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신좌파”(New Left) 운동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후의 Walzer의 글들은, 예컨대 「헝가리와 좌파의 실패」라든가 「중국의 백화제방운동의 전망」 등을 읽어보면 “구좌파”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나타내며, 이런 점에서 이들은 모두가 “신좌파 운동”을 예고한다고 해석된다.

Walzer의 구좌파에 대한 불만은 헝가리 혁명에 대해 영국 좌파 지식인들이 취했던 미온적 태도에 대한 공격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그는 “헝가리와 좌파의 실패”¹⁷⁾라는 글에서

had been used by medieval and early modern ‘corporations, guilds, churches, cities, provinces...’. What was important was that it was a collective action and that it sought to reclaim civil rights that had been denied by unjust government. In the southern Negro movement, Walzer saw a model for Americans to move beyond the impasse created by the conformity of American politics and the collapse of the American left. Citizens should use these forms of resistance against historical trends such as ‘the garrison state’ and ‘totalitarianism’. ‘[I]n so far as communities exist through which resistance is possible’, Walzer claimed, ‘the grotesque and awful future we so casually promise one another may safely be postponed’. Rejecting pluralist political theory, Walzer argued that ‘the possibility of communal resistance, and not the balance of organizational pressures, is the only test of a pluralist and democratic society’. ‘When consent becomes a platitude and a myth’, he concluded, ‘resistance is the proper activity of citizens.’” Walter A. Jackson, op. cit., pp. 31-32. 다른 한편 Walzer가 말하는 “저항”은 Franz Fanon이 말하는 “폭력”(violence)과 Camus가 말하는 “반항”(rebel)과는 어떻게 다른 지도 생각해 볼 과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항”은 그가 끊임없이 수행하는 “비판”(criticism)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밝혀야 할 문제이다.

16) Ibid., p. 410.

17) Michael Walzer, “Hungary and the Failure of the Left”, in *Dissent*(Spring, 1957), pp. 157-62.

“헝가리 인민이 짧은 기간동안 용감하게 보여준 새로운 힘을 영국인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Walzer는 *Manchester Guardian*지의 논평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헝가리 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지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비공산주의적 좌파들을 집결시키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Walzer가 특히 지적하는 것은 헝가리 사태에 직면하여 영국 좌파 지식인들이 보여준 불투명한 태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lzer는 영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New Statesman and Nation*지에 실린 G.D.H. Cole의 말을 인용한다. 즉 Cole은 “라코시(Rakosi)가 이끄는 헝가리 정권은 극도의 혐오스러운 전체적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는 당혹감과 “최근 헝가리의 사태로 말미암아 좌익사회주의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판단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지적 고뇌 등을 피력하였다. 여기서 Walzer가 강조하는 것은 영국의 좌파들이 헝가리 사태에 있어서 “부다페스트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왔는지를 짚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밝힌다.¹⁸⁾

첫째, Walzer는 *New Statesman and Nation*지를 영국 좌파 지식인을 특징짓는 “실용적 영국의식”(practical English mind)의 대변기관으로, 그리고 G.D.H. Cole을 이러한 의식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는다. 그 일례로서 Walzer는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난 1956년 7월 7일자의 다음과 같은 Cole의 말을 인용한다:

나는 소비에트연방에서 이 엄청난 잘못들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소련의 노동자가 대부분의 경우-예컨대 교육과 사회적 기회에 있어-엄청나게 확장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넌센스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확장된 자유는 비록 정치분야에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지만-그리고 이러한 제약이 대단히 통탄할만한 것이긴 하지만-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¹⁹⁾

둘째, Walzer는 Cole의 주장 속에는 통탄할만한 제약들을 점점 “덜” 통탄할만한 제약들로 받아들여가게끔 하는 위험성이 잠재해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Cole은 정치적 제약이 인간의 삶의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축소한다. 또 그가 말하는 정치적 제약도 따지고 보면 의회제도의 결여라는 역사적으로 특수하고 우연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여기서 Cole은 러시아인이 의회적 전통을 따르지 않게 된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

18) 같은 글, p. 157.

19) 같은 글, p. 158.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특별히 민주주의의 범주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Walzer는 바로 이 대목이야말로 Cole과 *New Statesman*지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Walzer는 *New Statesman*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공통점을 공유하는 자들과 우정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해야한다.’”²⁰⁾

Walzer는 이러한 태도 즉 “공통점을 공유하는 자들과 우정의 손을 잡으려”는 태도가 20차 소련공산당대회 이후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대화”의 통로를 여는 기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New Statesman*지는 포즈난 사태가 발발하기 1주일전인 1956년 6월 23일자 사설에서 “냉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대화관계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Walzer는 이렇게 반문한다. “이 두 집단간의 사이를 벌려놓은 것은 단지 냉전 때문일까?”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화관계에서 떠올려진 상(像)은 Nenni와 Togliatti였다. 그리고 제시된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의 단일성(monolith)을 분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적극적 역할론’(positive role)이었다. ‘적극적 역할론’은 물론 전체주의적 단일성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보다는 ‘민주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의 길에 대한 안내역을 자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또 Walzer는 이와 같은 “적극적 역할론”의 범주 가운데 좌파 사회주의 시사 주간지인 *Tribune*지-그야말로 “구좌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Tribune*”지-의 기고자인 Aneurin Bevan도 포함시킨다. 그 이유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Bevan의 말을 인용한다. 즉, “소비에트내의 전반적 조건이 실제적인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때에 포즈난 폭동이 발발한 것은 통탄할 일이다”, “폴란드내의 사태를 소비에트 유럽 블록의 와해의 조짐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과오이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에는 공산주의는 너무나 확고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하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와해는 우리 모두의 장기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폴란드 동무들은 소 연방과의 우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주장하는 것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Walzer는 “적극적 역할론”에 극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적극적 역할론’에 얼매인다면(frozen to their ‘positive role’), 모든 부문에서 부패해버린 단일체제가 그 체제를 세운 창립자들의 머리 위로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만 강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단일체제에 대한 어떠한 변명적 연대(apologetic connection)도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다고 보여진다.²²⁾

20) 같은 글, 같은 곳.

21) 같은 글, 같은 곳.

22) 같은 글, 같은 곳.

여기서 주의할 것은 Walzer가 “적극적 역할론” 그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맹종적으로 “엎매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과 만일 Bevan의 주장에 따라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공포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긴장완화”(relaxation)를 추구할 경우, 이와 같은 “긴장완화의 고취”(encouragement to relaxation)는 어떤 점에서 “혁명 포기론”(discouragement to revolution)과 표리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이러한 “혁명 포기론”이야말로 포즈난과 헝가리 사태를 예견할 수 없도록 영국 좌파 지식인들의 눈을 멀게 했던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Walzer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해 봄과 여름 동안에 동구를 여행했던 상당수의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지도되고 통제된, ‘민주화’ 과정만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닥쳐올 폭력적 사태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²³⁾

셋째, Walzer는 영국 좌파 지식인들이 “헝가리 혁명에 대해 진정한 동정심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이들은 불관서 사회주의자들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는 보다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한다. “영국인들은 헝가리 혁명을 혁명으로 만든 바로 그러한 요소들, 다시 말하면, 헝가리 사태 이전에 수립된 정부의 붕괴와 이에 따른 불가피한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통제의 상실’과 ‘감정의 부흥’ 등을 혐오하는 듯이 보인다.” Walzer는 Cole의 글 가운데서 이에 관한 구체적 예들을 찾아낸다.

Cole에 의하면, 헝가리 혁명이 발발하자마자 “몇몇 반동적 요소들은 이 때를 그들의 목적에 이용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노동자 위원회는 “연계성을 갖지 못한 지역조직이었고, 이들의 배후에는 명확한 행동강령으로 무장된 어떠한 통일적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혼돈의 와중에서 많은 불만집단들이 독자적으로 지역 및 과도적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들 중 어떤 집단은 “확실히 자유와 민주주의의 높은 이상에 의해 고취되었으나, 다른 집단들은 거의 공공연한 파시스트주의자들로서, 지난날 지배권력을 무너뜨린 혁명 일체를 해체시키려는 결의에 차있는 듯 했다”. 나지(Nagy) 정부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은 혁명의 주류세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은 완전한 혼돈 속에 위기에 빠졌고, 따라서 만일 소 연방이 일단 부다페스트에서 철수한 다음, 다시 탱크부대를 진주시켜 Janos Kadar 하에 새로운 공산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일어났을 지를 말할 수 없다.” 이어서 Cole은, 만일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헝가리 인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여기에 대해 Walzer는 “어째서?”라고 반문하고, 그것은 “자유 선거는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Cole의 답변을 대신한다. 그는 이어서 Cole이 러시아의 개

23) 같은 글, p. 159.

입을 “현실적으로 정당화”(a practical justification)하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이것은 말하자면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상투적 변호이며 현실정치(real politik)적인 수 쓰기”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는다.²⁴⁾

헝가리 혁명에 대한 이와 같은 좌파 지식인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어떤 사회주의자는 “무력감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과”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Walzer는 헝가리 혁명이 진행되던 같은 시기에 영국사회주의자들이 Eden 수상의 대 이집트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들은 유인물을 제작하였고, 항의집회를 열었고, 런던 중심가를 행진하였고, 전국적인 항의소동을 벌였으며, 대학도시는 반정부집회의 중심지가 되었고, 트라팔가(Trafalgar) 광장에서는 대대적인 대중집회도 있었다. 그러나 헝가리 사태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이상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여기서 Walzer는 이렇게 묻는다: “슬픔만이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싸운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회주의자의 책임의 전부인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던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끝맺는다.

분명히 요구되는 첫 번째 일은 단순한 인정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정이나 지지를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공통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어야 했다.

이와 같은 인정행위(act of recognition)는 결코 사회주의자의 하찮은 의무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도덕적 토대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럽에서의 사회주의적 활동의 전개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토대이다.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헝가리 혁명 속에서 국제적 사회주의와 반-냉전적 사회주의의 상을 인정했다라면, 그들 자신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찾아내지 않았을까? 만일 국제사회주의자 스스로가 NATO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동료 사회주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면, 이들 역시 적어도 자신들 국가의 무기력을 문제삼지 않았을까? 헝가리 혁명은 냉전시대의 침울한 정치현실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났다. 도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자들은 NATO와 Warsaw조약간의 긴장을 와해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이러한 긴장으로 조성된 억압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킬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강대국간의 협약은 냉전을 더 냉각시킬 뿐이다. 헝가리 혁명은 냉전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바로 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자의 과제이어야 한다.²⁵⁾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백화제방운동의 전망”²⁶⁾을 살펴볼 수 있다. Walzer는 이 글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좌파”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중국 자유화운동의 주역들의 외침 속에서 새로운 좌파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Walzer에 의하면, 중국의 자유화바람은 1956년 6월의 폴란드 폭동과 10월의 헝가리 혁명의 영향으로 모택동이 1957년 2월에 “온갖 꽃들로 다투어 피게 하고, 온갖 학파들로 다투

24) 같은 글, p. 161.

25) 같은 글, p. 162.

26) Michael Walzer, “When the Hundred Flowers Withered”, *Dissent*(Autumn, 1958), pp. 360-74.

어 주장하게 하라”는 교시를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한가지 단서를 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말과 행동은 공산당의 지도력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키지 않을 때에만 옳을 수 있다”는 지침이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처음엔 상당히 당황하였고 곤혹스러워 하였다. 북경대학의 유명한 화학자인 푸잉(Fu Ying) 교수는 새로운 “정풍”운동, 다시 말하면 “백화제방”운동에 대해 “반감과 거부감”을 느꼈으며, “즉각적으로 칭호농장(Ching Ho Farm)의 강제노동을 연상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식인은 지난번 정풍운동 당시 “매맞고 죽은 친구”를 상기시켰다. 또 어떤 이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떨렸다”고 토로하면서 “지식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공포에 떨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일제 점령 하에서나 국민당 치하에서보다 더 불안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들 지식인들은 민과 학생들의 우호적인 반응과 표면적으로는 묵인하는 듯이 보이는 당의 침묵에 힘입어 점차로 대담하게 발언하기 시작하였다. 『정치·법학연구』(*Review in Political and Judicial Sciences*)지의 주간 양유징(Yang Yu-ching)은 지식인의 비판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실재하는 제 조건을 비판하기 위해 펜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받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며, 사실 참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 상황에 반대한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현상에 대항하는 글들을 썼으며, 오늘날 우리 역시 현재의 상태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친절할 마음을 가진 자비롭고 동정심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용감하고 결단력 있고 대담해야 한다. 당의 업적과 공덕을 찬양하고 선양하는데 만족한다면 그런 사람은 인간이라 불릴 가치조차 없는 자이다.” 또 이엔 웬 쯔(Yan Wen-tsieh)는 지식인에 대한 당의 간섭을 비판하였다. “당의 안과 밖 어디에도 사상과 언론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못한다. 당의 이데올로기는 눈가리개나 다름없다. 당이 주도하는 운동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잘못이 있어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이것은 일종의 마음에 덧씌운 눈가리개이다.” 남경대학의 역사학 교수 레이 하이 쑹(Lei Hai-tsung)은 또 이렇게 꼬집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가 발전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1895년 엥겔스가 죽은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1895년 이후 레닌과 스탈린이 특수한 문제에 관하여 새로운 생각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혁명에 관한 것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수립한 새로운 사회과학은 1895년 이후 근본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중국의] 독단주의자들의 상황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들은 정체되어 있다” 『중국민주연맹』(the Democratic League of China)의 치엔 지아 지우(Tsien Kia-kin)는 “고등지식인”(superior intellectual)을 옹호하는 글에서 “서구와의 자유로운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등지식인의 이념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연구하고 이해하며 또 당원들의 편향된 보고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기를 희망한다. 고등지식인에게에는 자부심이 있다. 그는 진리에 굴복하지만 협박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학자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에게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그를 살해할 수는 있어도 치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좋은 전통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과학을 일괄적으로 배척해서도 안 된다. 불행히도 지난날 우리는 소연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모두 배격하고 매도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법학을 버렸다. 이런 류의 고립주의는 유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것이다.²⁷⁾

다른 한편 북경대학의 「물리-화학 연구소」의 연구원인 쯔어 페이 찌(Ko Pei-chi)는 당원과 대중간의 관계는 “고용인-피고용인” 또는 “주인-노예”나 다름없다고 폭로하면서, 민으로부터 유리된 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현재의 당과 민은 백마일 이상 서로 떨어져 있다. 혹자는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의 생활이 향상되었다는 말인가? 당원과 정부관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가난했었으나 지금은 자동차로 다니며, 고급 체복을 입고 산다.” 쉰 신 췌(Chen Hsin-kuei)는 공산당의 독재를 공격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오늘날 사실상 공산당의 독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질타하였다. 식품부장관 쟁 나이 찌(Chang Nai-ki)는 당이 정부기관을 장악함으로써 행정은 사실상 공동화되어가고 있으며, “관료적 독점은 관료적 무능과 통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 이와 같은 당의 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명일보』의 편집인 췌 안핑(Chu An-ping)은 다당제를 주장하였고, 「중국농민·노동자당」의 당수 췌보췌(Chang Po-chun)은 당과 국가간의 엄격한 구분과 순수의회제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경대학의 경우, 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예컨대 앞서 인용했던 쯔어 페이 찌는 폭동의 가능성까지도 시사하였다: “만약 당원 여러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대중은 당을 전복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다면, 민은 당을 전복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사회주의 발전의 법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며칠 후 중국의 언론은 쯔어씨의 이와 같은 선언이 “절대다수의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보도하였다.²⁸⁾ 그러나 Walzer는 “백화제방운동”의 절정은 북경대학 학생식당 앞 광장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린시링(Lin Hsi-ling) 양이 행한 연설이었다고 밝힌다. Walzer는 그녀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길게 인용한다:

27) 같은 글, p. 363.

28) 같은 글, p. 368.

진정한 사회주의는 고도로 민주적이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있는 사회주의는 민주적이지 않다. 내 생각에 그것은 봉건적 토대 위에 세워진 사회주의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당이 주도하는 정풍운동[즉, 백화제방운동]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며, 여기서 이루어지는 작은 개혁과 하층은 양보에 만족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여기에 따르는 어려움을 정복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을 깨우치고 동원하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은 아직도 계급적 차별을 타파하지 못하였다. 이 두 나라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국가이다. 사회주의는 계급의 타파에 있다. 중국도 소련도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는 현존 사회를 완전히 바꿀 철저한 혁명적 조치를 채택하기를 제안한다. 나는 개혁에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변화, 완전한 변혁이다. 반혁명세력의 청산운동과정에서 72만 명이 무고하게 처벌되었다.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공산당은 정부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 국가에는 사법제도도 없다.

1956년 북경에서 위먼(Yumen)에 갔을 때 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내 눈으로 보았다.²⁹⁾

Walzer에 의하면, 1957년 2월 모택동의 “백화제방”의 교시에서 비롯된 자유화-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위로부터의 자유화”(liberalization from above) 또는 “전체주의적 자유화”(totalitarian ‘liberalization’)³⁰⁾-의 열기는 5월말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북경에서 천진, 상해, 서안, 남경, 하르민, 한구, 중경, 심양 그리고 한양으로 번져나갔으며 또 종합대학에서 전문대로, 그리고 연구소와 중·고등학교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각종 모임과 조직을 결성하였고, 인가받지 않은 많은 간행물들과 포스터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의 벽”에는 슬로건과 풍자만화, 포스터나 선언문들이 나붙었다. 논쟁은 싸움으로 확대되었고, 데모는 점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양의 경우, 8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파업을 일으켰고, 노상에서 데모를 벌였고, 책자를 살포하였고, 슬로건을 외쳤고 마침내 공산당사를 약탈하였다.” 드디어 청화대학 부총장은 “우리 중국은 폴란드 폭동과 헝가리 사태의 일보직전에까지 와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³¹⁾

이와 때를 같이하여 6월 8일과 9일 그리고 11일자 『인민일보』의 사설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백화제방」에 대한 일대 반격을 감행하였다. 6월 21일자에는 손문의 미망인의 경고 메시지가 실렸고 26일에는 주은래가 “정부 사업보고서”에서 당을 겨냥한 비판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반박하였다. 특히 학생들에 대해 그는 “학교의 정치 및 이념교육의 강화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우익주의 요소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입장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민주적 독재를 모든 과오와 결함의 원천

29) 같은 글, p. 369.

30) 같은 글, pp. 360, 361, 372.

31) 같은 글, p. 371.

으로 매도하였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국가권력을 전위대인 공산당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민주연맹」에 소속한 우한(Wu Han)의 주도하에 자유화 주역들에 대한 치욕적인 자아비판의 마지막 의례행사가 집행되었다. 특히 쟁보쥘의 경우에는, 그의 첫번째 자아비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2번째 자아비판을 해야했다. 7월 15일 쟁은 그의 두번째 자아비판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중국의 “제방운동”은 사실상 그 종말을 고하였다. Walzer는 쟁의 2번째 자아비판을 “제방운동”의 맺는 말로써 인용하고 있다:

나의 잘못된 이념과 그릇된 행동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 나는 지주계급의 출신이다. 오랫동안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내가 받아들인 봉건적 이념과 부르조아적 교육이었다. 1927년 영광스런 중국 공산당을 거부한 이후로 나는 중도노선을 걷는 몇몇 중심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30%는 반공산주의자였고, 70%는 반장개석파였다. 나는 정치적·군사적 분야에서 기회주의적 활동을 일삼았다.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올바른 중국 공산당 30주년인 1951년 7월 1일에야 비로소 나는 ‘공산당은 나를 구원하였다’는 제목으로 자아비판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아직도 나의 사악한 생각의 뿌리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잠복해있던 이와 같은 나의 사악한 생각들이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이후 다시 나타났다. 나는 스탈린을 과도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비판하였다. 나는 심지어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근본적 원칙을 경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금년도 정치회의에서 ‘나는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나는 또한 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선언하였다. 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며, 이것은 분명한 나의 잘못이다. 만약 사회주의에 과학기술과 ‘민주주의’를 추가한다면 우리 나라의 생활은 보다 더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 나라의 전 인민은 나를 우익주의자로서 엄격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이와 같은 처분을 감수하겠다. 나는 내가 혐오하는 것들에 대해 중요하다. 나는 나의 낡은 반동적 ‘자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히 청산되기를 바란다. 나는 인민과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항하는 싸움을 포함해서 우익주의자들과의 치열한 싸움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지난날 위대한 공산당은 나를 구원하였다. 오늘 공산당은 나를 다시 구원하였다. 나는 당과 모택동 주석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당을 또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³²⁾

3. 결 론

구좌파에 대한 Walzer의 불만은 신세대에 대한 강한 관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서 영국의 신세대에 관하여 쓴 「분노한 젊은 세대의 정치」³³⁾와 미국의 신세대에 관한 J. D. Salinger의 글을 비판한 「영웅을 대신하여」³⁴⁾ 그리고 「민주적 문화를 위한 교

32) 같은 글, pp. 373-4.

33) Michael Walzer, “Politics of the Angry Young Man”, *Dissent*(Spring, 1958), pp. 148-54.

34) Michael Walzer, “In Place of A Hero”, *Dissent*(Spring, 1960), pp. 156-62.

육: I」³⁵⁾ 및 「미국의 학교-II」³⁶⁾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부터 그의 논의는 “민권운동”과 월남전 반대운동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간다.³⁷⁾

35) Michael Walzer, “Education for A Democratic Culture: I”, *Dissent*(Spring, 1959), pp. 107-21.

36) Michael Walzer, “The American School-II”, *Dissent*(Summer, 1959), pp. 223-37.

37) 필자는 Walzer의 민주사회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행본에서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서설로서 Walzer에 관한 논의를 일단락 짓고자 한다.